



Social Pharmacy Perspectives

약사가 접하는 윤리문제

저자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이 글에서는 약사의 윤리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 약사들이 접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논의를 위한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의료 윤리원칙으로 알려진 피해회피의 원칙, 자율성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해외 문헌으로부터 약사의 업무에서 만나게 되는 윤리문제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윤리적 감수성의 향상과 윤리적 원칙의 습득을 위해 어떠한 질문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약사 업무에서 윤리적 감수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이 부족한 이유로는 직업윤리, 생명윤리, 과학윤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부주의함도 영향이 있으며,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문제, 동료 간 협력의 결핍, 인내심의 결핍, 합리성의 결핍으로도 기인할 수 있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례 토론을 통한 교육은 도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윤리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키워드

윤리적 감수성, 윤리적 딜레마, 선행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커뮤니케이션

서론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서 공동체 사회에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규범이다. 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특정 직업에 대해 요구되는 직업윤리도 존재한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 이들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전문가들은 이를 인지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직에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의사나 간호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직 윤리는 많이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인을 위한 윤리적 행동원칙은 윤리학자인 비참과 칠드리스(Beauchamp & Childress)에 의해 제시되어 널리 알려진 피해회피의 원칙, 자율성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다(한국약학교육협의회 사회약학분과 위원회, 2018). 약사도 보건의료인의 하나이므로 동일한 행동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윤리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반면 약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의 발굴과 논의가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윤리원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문헌을 통해 약사업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직면하는 윤리문제에서 해외와 우리나라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국내 상황에서 약사들의 윤리적 민감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건의료 윤리원칙

1. 피해회피의 원칙

피해회피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상동). 보건의료인에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환경의 복잡성과 의료기술의 발전 상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보통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약사가 하는 서비스는 사실상 피해를 무조건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약사업무의 이중적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과 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것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약사의 기본 자격요건이자 약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원칙을 고수하는데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2. 자율성의 원칙

자율성이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원칙에 따르거나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평등한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사회에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속성을 지닌 다양한 제도, 법, 관습, 관행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보건의료영역에서도 환자의 선호와 가치를 치료 결정에 반영하였을 때 더 좋은 치료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인 의료제공자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환자 관계는 질병, 치료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불균형이 존재하며, 의료전문가들과 환자와의 관계는 가부장주의(paternalism)적인 관계, 즉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고 자식은 이를 따르는 것과 같은 관계가 온존하는 경향이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약사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유사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건의료 윤리원칙으로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치료내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동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보건의료인은 환자에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회피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위험과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행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며, 취약한 환자를 돕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4. 정의의 원칙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칙은 한정된 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에서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어떤 의료기술에 먼저 급여할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장기이식을 할 것인가 등은 모두 정의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처지나 지위에 따라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므로 더 공정한 결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들은 정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의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해외 문헌에서 나타나는 약사의 윤리문제

이상에서 보건의료인 윤리원칙을 살펴보았으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윤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요구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문헌을 통해 약사의 업무 중 접하게 되는 윤리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았다.

1. 약학대학 윤리교육 사례

요르단에서는 약국 윤리에 관한 윤리강령이 존재하지만,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는 약사들에게 윤리강령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시 개인의 경험과 가치, 법령, 관행, 상식에 따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Fino et. al., 2022).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에 대한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사례나 경험을 통해 문제를 식별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전문가적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요르단의 약사 실무실습에서 제시되는 직업윤리 사례와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1) 요르단의 약학대학 윤리교육용 사례 1

추운 겨울 오후였고 하루 종일 약국의 영업은 한산했습니다. 약사는 3개월 전에 이전 소유주로부터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재정 상황은 어려웠고, 대출금 할부 연체에 대한 은행의 통지서가 전날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는 고객이 약사를 만나자고 요청하여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자신의 부비동염에 대해 약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파라세타몰, 항히스타민제, 비강 분무제를 포함한 많은 약물을 시도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비동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제품으로 많은 마진과 훌륭한 프로모션이 포함된 많은 OTC 제품이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비싼 제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효능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에게 많은 증상 완화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① 약사는 OTC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까?

2) 요르단의 약학대학 윤리교육용 사례 2

어느 늦은 금요일 저녁 약사가 잘 알고 있는 한 고객이 매우 괴로워하며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어머니의 암 치료와 통증 완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약을 조제해 왔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지난번 조제 받은 진통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약사에게 트라마돌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최근 그녀의 어머니는 돌발성 통증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진통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지 못했으므로 월요일이 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 ① 약사는 이 고객이 원하는 진통제를 판매해야 합니까?
- ②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를 하여 법적으로 초래하는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③ 처방전이 없어도 긴급한 경우 약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입니까?
- ④ 이 약을 제공할 경우 약사의 전문적, 임상적 판단은 적절합니까?

3) 요르단의 약학대학 윤리교육용 사례 3

약국에서 매우 바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약사가 잘 아는 단골고객이 경구피임약을 들고 와서 미혼인 20세 딸의 서랍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객은 딸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그 약의 가능한 적응증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약사는 문을 닫기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 ① 약사는 곧 약국 문을 닫아야 하니 고객을 돌려보내야 할까요? 이런 행동이 고객과 약사의 신뢰 관계를 해치지 않을까요?
- ② 고객의 딸도 약사의 환자인데 투약 사실과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2. 약사들이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

한 연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사들이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조사하였다(Orayj et. al., 2022). 조사된 사례들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사가 갖는 가부장적 온정주의와 복약순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 발생하는 갈등, 환자 정보의 보호 문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상반되는 약물 투여로 인한 갈등, 팀 의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식, 동료에 대한 태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본적인 공공윤리에 관련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례는 모든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지며, 윤리적 갈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약사들이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

- ① 환자에게 약을 먹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약을 먹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② 좋은 의도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 또는 그 가족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
- ③ 귀하의 신앙이나 종교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다고 믿기 때문에 약물 투여를 거부한 것
- ④ 동료가 저지른 중대한 실수를 고용주에게 숨기는 것
- ⑤ 공공장소에서 환자들에게 약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 ⑥ 앞에 있는 환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줄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⑦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처방전에 침묵하는 것

3. 약사의 임상 업무 증가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사는 지식 기반 직업이자 가치 기반 직업이고, 약사들이 업무에 있어서 매우 헌신적이고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Benson, 2009). 그러나 주로 과학적인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가치 및 윤리적 판단은 개인적 일처리로 국한되고, 더 개방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는 거의 수행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고된 가치와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적으로 내재된 직업윤리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약사의 업무는 점점 더 임상팀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오늘날 약국 업무는 "환자 중심 치료"를 요구하므로 약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책임을 부여하고, 종종 업무 시 양립할 수 없는 반대 방향의 윤리적 원칙, 제도적, 개인적 또는 기타 제약과 관련되어 많은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만든다. 이 연구에서는 윤리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약사가 환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문제를 유능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영국 약사들이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

전문 약국 체인에서 일하는 약사는 아래와 같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 ① 고용주의 상업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판매자로서의 의무와 환자의 이익을 위한 약사로서 최선의 선택
- ②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약사의 열망으로 인한 가부장적 태도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 ③ 의사의 처방전이 좋은 치료방법이 아닐 때 의사소통

시사점

약사들이 매일의 업무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과학적 합리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치나 윤리적 딜레마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해외 문헌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윤리적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윤리에 대한 교육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윤리적 감수성을 키우는 데에는 윤리적 원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토론과 추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사례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약사가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고, 동시에 환자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 Point

- 약사의 업무에 환자 중심의 임상적 성격이 강해질수록 여러 윤리적 갈등이나 딜레마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지 의약품이라는 상품의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로서 의약품과 약사 서비스로의 전환은 ‘의약품과 환자’, ‘환자와 약사’, ‘약사와 의사’, ‘환자와 환자보호자’ 등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윤리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윤리적 딜레마를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원칙 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윤리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한 경험적 교육이 요구된다.
-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습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사회약학분과위원회, 약무행정과 경영관리 2판, 제2장. 범문커뮤니케이션, 2018
2. Leen B. Fino, Ahmad R. Alsayed, Iman A. Basheti, Bandana Saini, Rebekah Moles, Betty B. Cha

- ar, Implementing and evaluating a course in professional ethics for an undergraduate pharmacy curriculum: A feasibility study, *Curr Pharm Teach Learn*. *Curr Pharm Teach Learn*. 2022 Jan;14(1):88-105. (doi: 10.1016/j.cptl.2021.11.031. Epub 2021 Dec 29)
- 3, Khalid Orayj, Khalid Alahmari, Moath Alasiri. The Concept of Pharmacy Ethics and the Examples of Ethical Dilemmas Encountered by Pharmacists in the Asir Region, Saudi Arabia: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General Medicine* Volume 2022. 15:4985-4996 (DOI:10.2147/IJGM.S368262)
4. Ailsa Benson, Alan Cribb, Nick Barber, Joseph Cesarz, David. Mott, Eric, Understanding pharmacists' values: A qualitative study of ideals and dilemmas in UK pharmacy practice, *Soc Sci Med*. 2009 Jun;68(12):2223-30. (doi: 10.1016/j.socscimed.2009.03.012. Epub 2009 May 4.)